

봉급생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과 금융자산 비교 분석

황 덕 순[†], 주 문 자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Income and Financial Assets by Occupation **- A Comparison of Salary Earner and Self-Employed Households -**

Duck-Soon Hwang[†], Moon-Ja Joo

Dept. of Home Mngement, Chonnam National Univ.

Abstract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income and financial assets of the Salary Earner and those of Self-Employed households. The data was drawn from the Korean Household Panel Study(KHPS) that was surveyed by Daewoo in 1995.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All households were holding salary/business income, and the average of salary/business income of Salary earner household and Self-employed household were found to be 1,580,000 won and 2,050,000 won respectively.

2. Households were holding saving accounts most in both groups.

3. The yearly financial income, yearly immovable property income, and the yearly annuity income were correlated with yearly subsidiary income. The yearly financial income were correlated with the yearly annuity and yield from bonds. There were nega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yearly annuity and yield from bonds. The yearly miscellaneous income was correlated with the yearly yield from stock. There were nega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yield from stock and bonds in Salary-Earner households.

4. The yearly subsidiary income and yield from bonds were correlated with monthly business income. The yearly annuity and yearly total amounts of saving accounts were correlated with yearly subsidy income. The immovable property, the yearly yield from stock and bonds were correlated with the yearly financial income. The yearly yield from stock and bonds were correlated with the immovable property and the yearly annuity income. The yearly miscellaneous and total amounts of saving accounts were correlated with the yearly yield from stock and bonds. The yearly yield from stock was correlated with yield from bonds in Self-Employed households. (*Korean J of Human Ecology 2(1):1-11, 1999*)

KEY WORDS : income, financial assets, salary earner, self-employed

[†]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
300 Yongbong-dong, Puk-gu, Kwangju, 500-757, Korea
Tel : 062-530-1321, Fax : 062-530-1329
E-mail : dshwang@chonnam.ac.kr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가족의 재정상태는 어느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으로 평가(Marlowe & Godwin, 1988)될 수 있다. 통계청(1996)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의 1996년 월평균소득은 1995년에 비해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원천별 소득에서도 역시 증가추세를 보여 1995년 대비 근로소득이 11.9%, 사업 및 부업소득이 16.3% 증가하였다. 이러한 소득의 증가는 가계재무 계획자에게 더 큰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투자심리를 유발한다. 안정된 가계운동을 위해서 투자는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투자는 가계의 여러 경제부분들이 소득변화에 의해 영향받기(Bryant, 1986) 때문에 우선 소득을 평가한 후에 행해져야 한다. 모든 형태의 투자는 먼저 어느 정도의 돈이 축적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형성은 투자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돈을 저축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중대한 재정적 사건(Varcoe, 1990)이라 할 수 있다. 가계저축의 목적은 미래의 재정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재정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가계저축은 이러한 가정경제적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양세정·이영호, 1996)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은행(1996)에 따르면, 1996년 현재 우리나라 도시가구 중 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95.1%이며,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비율은 전체가구의 95.1%로 거의 모든 가구가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금융기관에 대한 가계투자의 영향력의 절대성과 금융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한완상 등의 연구(1987)에 따르면, 스스로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78.8%에 달한다고 한다(서울대 사회학 연구회, 1997 : 135). 이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중산층, 중간계층, 중간계급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미국

에서 주로 발전된 계층개념은 개인들의 행위나 태도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홍두승·구해근, 1994). 특히 현대사회에서 사회계층의 경제적인 측면이 중요해 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계층을 나눌 때 그 계층의 구성요소는 직업, 수입, 교육 등으로 그 구성요소간에는 어떤 연관이 존재한다는 보고도 있다(Beteille, 1996). 중간계층은 학자마다 구분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나, 크게 구중간계층과 신중간계층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구중간계층을 흔히 통용되는 용어로 자영업자, 신중간계층을 봉급생활자라 한다.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1998)¹⁾, 조사대상자 중 자영업자의 수는 약 28%로서 적어도 IMF 경제통계체제 이전까지는 안정된 비율로 현대 한국사회에서 자리매김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홍두승·김병조·조동기(1997)에 의하면, 임금·봉급생활자의 비율은 1980년 전체대상자의 62.4%, 1985년 61%, 1990년 62.5%, 1995년 66.4%로 나타나 15년 동안 평균 63%의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지난 40 여년간 한국의 직업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농림수산업 종사자 직업이 유일하게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직업군은 증가하는 추세를(홍두승 등, 1997) 보이기 때문에 위의 두 조사(통계청, 1998; 홍두승 등, 1997)의 결과를 고려하여 볼 때 1990년대 후반기 우리나라의 중산계층은 약 78.8%와 91%(28%+63%) 사이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Petter Saunders는 사회계층(넓은의미의 직업지위나 직업상태)과 소비행동(금융관련 소비행동)과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주장하였으며, Pierre Bourdieu는 비슷한 지위의 직업(교사와 교수, 상점주인과 상업계통의 사업가들)은 그들이 갖는 자산액에 따라 구분된다고 하였다(Toivonen, 1990: 322-323).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업과 자산 또는 직업과 소비행동(특히 금융관련 소비행동)은 어떤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가설화 할 수 있으며, 직업에 따른 소득수준과 금융자산구조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인구학적인 면에서

1) 연도별 자영업자의 비율

해당연도	1995년	1996년	1997년	평 균
비율(%)	27.9(%)	27.9(%)	28.3(%)	약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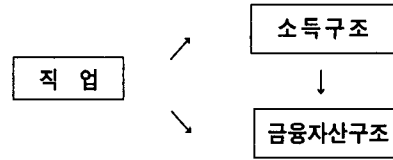
자료원: 통계청 (1998.5), 『경제활동인구연보』.

불 때 꾸준한 증가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과 금융자산을 비교함으로써 중간계층의 재정관련 행동의 특성과 재정상태의 구조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가계의 금융자산에 관한 연구(Warner & Cramer, 1995: Hira, 1987: Davis, 1987: Titus, et al., 1989: Wellen & Peck, 1990: Sumarwan & Hira, 1992: Bryant, 1986: Marlowe & Godwin, 1988: Toivonen, 1990: 문숙재·양정선, 1996: 양정선, 1991: 양세정·이영호, 1996)는 대부분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금융자산구조(보유액, 종류)에 대한 가계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변인(성별, 가족의 크기, 교육수준, 소득, 고용상태, 결혼상태 등)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Sumarwan & Hira, 1992)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소득은 금융자산구조의 예측변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소득변인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소득구조가 금융자산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직업은 금융관련 소비행동과 상관관계가 있는 변인(Toivonen, 1990)이므로 가계의 모든 사회경제적 변인이 그 가계의 금융자산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보다는 직업차이(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로 인한 소득의 차이가 금융자산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연구의 의미 있다고 본다.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연구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수적으로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며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가 가능하며 다른 직업집단이 전혀 섞이지 않은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가구만을 분류함으로써, 직업에 따른 소득구조와 금융자산구조의 순수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IMF 구제금융체제 이전의 우리나라의 대표적 두 직업집단 가구의 소득과 금융자산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IMF 경제통제체제가 지속된 지 2년이 되는 지금 가계구조가 얼마나 변화하였는 지를 비교하는데 기본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모형



3.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봉급생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구조와 금융자산 구조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소득과 금융자산 보유율은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소득과 금융자산액은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봉급생활자 가구에서 소득과 금융자산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5. 자영업자 가구에서 소득과 금융자산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문헌고찰

1. 소득과 금융자산

1) 가계의 소득과 금융자산

Warner와 Cramer(1995)는 가족관리체계모델(Family Management-Systems Model)을 사용하여 저축행동을 연구하였다. 투입(소득, 교육, 수요, 결혼상태, 자녀수) => 과정(저축하는 이유, 현금유동성에 대한 태도, 위험에 대한 태도) => 산출(순가치 : 유동자산, 주택지분, 사업지분, 생명보험의 현가)의 모델로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저축행동의 측정자로서 순자산의 가장 강한 예측변인임을 밝혔다. Hira(1987)는 가구의 자산소유에 영향을 주는 화폐관리행동을 연구하였는데, 순소득이 높을수록 소유한 자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Davis와 Schuman(1987)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저축액이 많았음을 밝혀, 소득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계 저축액은 많아졌다고 한 임정빈·이영호·최자영(1997)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2)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의 금융자산

한국은행은 1996년 도시가구 가구주의 직업별 저축보유액을 조사하였다. 직업을 자영업자/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전문직종사자/기타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전문직 종사자가 가장 높고,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기타, 일용근로자 순이었다.²⁾

Toivonen(1990)은 직업과 소비지출유형과의 관계 그리고 소득과 소비지출유형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직업은 소비유형에 대해서 소득보다 강력한 요인이며 직업효과는 소비지출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 하였으며, 양정선(1991), 양세정·이영호(1996) 역시 직업에 따라 저축율과 가계저축규모는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2. 용어정의

1)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봉급생활자(salary earner)는 비제조업에 종사하는 임금취득자(New Petty Bourgeoisie)(Poulantzas, 1974), 또는 지식노동이나 두뇌노동의 부수로서 급료를 받고 있는 사람(경제학대사전, P690, 1984)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경영인(월급사장), 일반직장인, 공무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규적으로 월급을 받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대우패널, 1996)으로 조작적인 정의를 내린다. 자영업자는 소규모의 제조업 종사자, 업주, 독립된 장인, 무역업을 하는 사람(Traditional Petty Bourgeoisie)(Poulantzas, 1974)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상업 및 서비스업, 개업약사, 개업의사, 개업변호사, 개업 공인회계사 등을 포함하며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대우패널, 1996)으로 조작적인 정의를 내린다.

2) 소득

생산자원의 용역에 대한 보수로서 개인(가계)에 지급되는 댓가와 기업이윤을 포함한 것이다.

3) 금융자산

① 자산과 자본(Asset & Capital) : 순자산(net worth)을 자본으로 본다. 즉, 적극재산(자산)에서 소극재산(부채)을 차감한 순자산을 자본이라고 하며, 자본방정식은 다음과 같다(경제학 대사전, p.1210, 1984). 적극재산(자산)-소극재산(부채)=순재산(순자산, 자본)

② 금융자산(Financial Assets) : 자산(Asset)은 크게 실물자산(Real Assets)과 금융자산(Financial Assets)으로 구분된다. 실물자산은 공장, 건물, 땅과 같이 생산에 사용되는 유형의(tangible)자원을 말한다. 금융자산은 화폐, 채권, 주주지분(주식)과 같이 소득(Income)이나 가치(Value)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자산을 말한다(Pearce, 1983: 20). 오늘날 금융자산은 주식, 채권, 예금, 어음, 옵션, 선물, 기타 여러 가지 유가증권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지청·조담, 1995).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대우경제연구소의 1995년도에 실시한 한국가구패널조사(Korea Household Panel Study : KHPS)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이 조사는 1993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것으로서 1995년도의 조사는 전국 6대도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8도의 3,108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개인과 가구에 대한 정보 모두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여기서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가구를 비교하기 위하여 가구를 단위로 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2. 측정변수

- 대우패널 데이터(1996)의 측정변수에 대한 정의를 이용하였다.

① 직업 : 봉급생활자는 전문경영인, 일반직장인,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정규적인 월급을 받는 직장에 다니는

2) 직업별 연평균 저축액 비교(단위: 만원)

년도/직업	전문직	자영업	상용근로	기타	일용근로	전체평균
1993년	1,483	1,226	1,096	863	632	1,112
1994년	1,519	1,370	1,306	984	944	1,296
1995년	2,055	1,985	1,546	1,699	1,243	1,744

자료원: 한국은행(1996), 『도시가계 저축 시장 조사』

사람을 뜻하며, 자영업자는 농수산업을 제외한 일반 상업 및 서비스업, 개업약사, 개업의사, 개업변호사, 개업 공인 회계사 등을 포함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영업자, 자유업자, 개인사업자 또는 고용주를 말한다.

② 소득은 가계에 들어오는 소득총액으로, 월평균급여/월평균소득, 부업소득, 금융상품을 통한 소득, 임대나 부동산 매매 등을 통한 부동산소득, 연금이나 보조금 소득, 기타 소득(적금 탄 돈, 상해 및 각종 재해로 인해 보험 탄 돈, 기간만료로 인한 저축성 보험 탄 돈, 유가증권 매각 대금, 동산·부동산 매각 대금, 빌려주었다 받은 돈, 복권 탄 돈, 기타소득)으로 구성된다.

③ 금융자산에 대한 측정변수는 예금(은행요구불예금, 은행저축성예금, 투자신탁·증권회사의 각종 예금, 종합금융회사·단자회사의 각종 예금, 신용협동조합의 각종 예금, 상호신용금고의 각종 예금, 우체국의 각종 예금, 농·수·축산업협동조합의 각종 예금, 기타), 주식, 채권(국공채, 회사채), 보험(생명보험, 교육보험, 연금보험, 생명+연금보험, 기타) 등의 변수로 구성되며, 실물자산에 대비되는 금융자산을 말한다.

3. 자료분석방법

봉급생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의 분명한 구분을 위해서 봉급생활자 가구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족원이 전혀 없고 봉급자만 1명 이상 있는 가구를, 자영업자 가구는 봉급을 받는 가족원이 전혀 없고 자영업자만 1명 이상 있는 가구를 말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다른 가족원의 직업형태와는 상관없이 가구주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봉급생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나 이런 분류방식으로는 직업간의 순수한 효과분석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봉급생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간의 직업간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 연구는 봉급생활자만 있는 가구를 봉급생활자 가구, 자영업자만 있는 가구를 자영업자 가구로 분류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과 금융자산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평균값을 분석하였으며, 소득과 금융자산 보유율은 χ^2 -test로 검증하였으며, 소득과 금융자산이 직업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소득변수와 금융자산과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데이터는 모든 가구가 제 유형의 소득과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소득과 금융자산구조의 빈도가 전체 봉급생활자 가구의 빈도(1340), 전체 자영업자 가구의 빈도(744)와 일치되지 않았다.

IV. 분석결과 및 논의

1. 소득과 금융자산 구조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과 금융자산의 구조는 <표 1>과 같다. 소득 원천별로 볼 때,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가구의 월평균 급여와 월평균 사업소득은 각각 158만원, 205만원이며, 연평균 부업소득은 각각 266만원, 815만원이며, 연평균 금융상품을 통한 소득은 각각 470만원, 53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임대나 부동산 매매에 의한 부동산 소득은 각각 4,144만원, 4,545만원이며, 연평균 연금이나 보조금소득은 각각 375만원, 427만원이며, 연평균 기타소득은 각각 1,343만원과 2,102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내용별로 볼 때, 봉급생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의 총예금액은 각각 1,022만원, 1,105만원으로 나타났다. 총 주식보유액은 각각 932만원, 1,099만원으로 나타났다. 총 채권보유액은 각각 397만원, 123만원으로 나타났다. 매달 불입하는 보험액은 각각 16만원, 21만원으로 나타났다.

2. 소득과 금융자산 보유율의 차이 검증

<표 2>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가구간 소득과 금융자산 보유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것으로, 금융상품소득, 부동산소득, 예금, 주식의 보유율은 서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원천별로 볼 때, 금융상품소득 보유율은 봉급생활자가 자영업자 가구보다 높고, 부동산소득 보유율은 자영업자가 봉급생활자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형태별로 볼 때, 예금과 주식 보유율은 봉급생활자가 자영업자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직업에 따른 소득과 금융자산액의 차이

<표 3>에 의하면, 자영업자 가구의 총소득, 월 급여/월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봉급생활자 가구보다 유의한

〈표 1〉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과 금융자산의 구조(1995년)

변 수		구 분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빈도(가구)	평균(만원)	빈도(가구)	평균(만원)
소 득 원 천	월 급여/월 사업소득(월)		1,340(100%)	158	744(100%)	205
	부업소득(연)		36(13%)	266	18(12%)	815
	금융상품을 통한 소득(연)		257(19%)	470	99(13%)	530
	임대나 부동산 매매에 의한 부동산소득(연)		181(14%)	4,144	138(19%)	4,545
	연금이나 보조금 소득(연)		221(16%)	375	161(11%)	427
	기타소득(연)		289(22%)	1,343	153(21%)	2,102
금 용 자 산	예 금	총예금액	1,022만원		1,105만원	
		은행요구불예금	592(44.2%)	421	309(41.5%)	531
		은행저축성예금	741(55.1%)	831	323(43.4%)	850
		투신·증권회사예금	64(4.8%)	1,222	17(2.3%)	1,709
		종금·단자회사예금	10(0.7%)	568	4(0.5%)	1,665
		신용협동조합예금	64(4.8%)	492	53(7.1%)	605
		상호신용금고예금	22(1.6%)	970	12(1.6%)	760
		우체국예금	40(2.9%)	340	27(3.6%)	656
		농·수·축협예금	89(6.6%)	520	63(8.5%)	605
	기 타	31(2.3%)	354	11(1.5%)	977	
	주 식	총주식액	932만원		1,099만원	
	채 권	총채권액	397만원		123만원	
	보 험	매달 보험 지불액	16만원		21만원	
		생명보험	479(35.8%)	8	243(32.7%)	10
		교육보험	301(22.5%)	8	183(24.6%)	10
		연금보험	224(16.7%)	15	120(16.1%)	12
		생명+연금보험	110(8.2%)	13	69(9.3%)	22
		기 타	190(14 %)	12	84(11 %)	31

〈표 2〉 소득과 금융자산 보유율의 차이 검증

변 수		구 분	봉급생활자(전체 : 1,340, 100%)		자영업자(전체 : 744, 100%)		χ^2 Value
			보유(N, %)	미보유(N, %)	보유(N, %)	미보유(N, %)	
소 득 원 천	부업소득		36(2.69%)	1,304(97.3%)	18(2.42%)	726(97.6%)	0.137
	금융상품소득		257(19.0%)	1,083(81.0%)	99(13.3%)	645(86.7%)	12.589**
	부동산소득		181(14.0%)	1,159(86.0%)	138(19.0%)	619(81.0%)	7.318**
	연금, 보조금소득		221(16.0%)	1,119(84.0%)	161(22.0%)	668(78.0%)	2.699
	기타소득		289(21.57%)	1,051(78.4%)	153(20.5%)	591(79.4%)	0.289
금 용 자 산	예 금		1,049(78.0%)	264(22.0%)	541(72.7%)	203(27.3%)	15.528**
	주 식		213(15.9%)	1,127(84.1%)	64(8.60%)	680(91.4%)	23.424**
	채 권		45(3.00%)	1,292(97.0%)	27(3.63%)	717(96.4%)	0.003
	보 험		854(64.0%)	481(36.0%)	474(63.7%)	270(36.3%)	0.032

*P< .05 **P< .01 ***P< .001

〈표 3〉 직업에 따른 소득과 금융자산액의 차이

변 수	구 분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t
		MEAN(만원)	MEAN(만원)	
총소득((a*12)+b+c+d+e+f)	(연)	3,954	5,802	3.473***
월급여/월사업소득(a)	(월)	158	205	9.257***
부업소득(b)	(연)	266	815	1.416
금융소득(c)	(연)	470	530	0.474
부동산소득(d)	(연)	4,144	4,545	0.281
연금·보조금소득(e)	(연)	375	427	-0.450
기타소득(f)	(연)	1,343	2,102	2.805**
총예금액(g+h+i+j+k+l+m+n+o)		1,022	1,105	0.405
은행요구불 예금(g)		421	531	2.133*
은행저축성 예금(h)		831	850	0.066
투신,증권회사의 예금(i)		1,222	1,709	0.967
종금, 단자회사의 예금(j)		568	1,665	1.459
신용협동조합의 예금(k)		492	605	0.802
상호신용금고의 예금(l)		970	760	-0.619
우체국 예금(m)		340	656	1.249
농,수,축산업협동조합 예금(n)		520	605	0.646
기타(o)		354	977	2.926**
주식보유액		932	1,099	0.565
채권액(p+q)		397	123	-0.892
보험의 총월평균불입액(r+s+t+u+v)		16	21	2.274*
생명보험 월평균불입액(r)		8	10	2.3515*
교육보험 월평균불입액(s)		8	10	1.807
연금보험 월평균불입액(t)		15	12	-0.428
생명+연금 월평균불입액(u)		13	22	2.571*
기타보험 월평균불입액(v)		11	31	2.468*

*P< .05 **P< .01 ***P< .001

차이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영업자 가구의 월평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영향으로 보인다. 은행 요구불 예금액과 기타 예금액 역시 직업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자영업자 가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보유액과 채권보유액은 직업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러 보험의 월평균 불입액을 합한 총 월평균 불입액과 생명보험의 월평균 불입액, 생명+연금보험의 월평균 불입액, 기타 보험의 월평균 불입액은 직업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자영업자 가구가 봉급생활자 가구에 비해 매월 더 많은 금액을 보험에 불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봉급생활자 가구의 소득과 금융자산과의 관계

〈표 4〉는 봉급생활자 가구의 소득변인과 금융자산 변인 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으로, 월 평균 급여는 어떤 변인과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부업소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인은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연금·보조금소득으로 나타나 부업을 해서 얻어진 소득이 많을수록 금융소득은 적었으며, 부동산소득, 연금·보조금소득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변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인은 연금·보조금소득과 채권액인 것으로 나타나 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소득이 많을수

록 연금·보조금소득과 채권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소득 변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보조금소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인은 채권액인 것으로 나타나 연금·보조금소득이 많을수록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소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인은 주식보유액으로 기타소득이 많을수록 주식보유액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예금액은 어떤 변인과의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주식보유액은 채권액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주식보유액이 많을수록 채권액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액과 매월 보험불입금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과 금융자산의 관계

〈표 5〉는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과 금융자산의 상관

관계수를 나타낸 것으로, 월사업소득이 많을수록 부업소득, 채권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업소득은 연금·보조금소득이 적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나 봉급생활자 가구와 반대인 결과를 보여주었고 총예금액이 많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던 봉급생활자 가구와 다른 구조를 나타내었다.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부동산소득, 주식보유액, 채권액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소득은 주식보유액과 채권액이 많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나 어떠한 변수와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봉급생활자 가구와 다른 결과였다. 연금·보조금소득은 주식보유액 및 채권액과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기타소득과 총예금은 주식보유액이 많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보유액은 채권액이 적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권액은 매월 보험 불입액이 많을수록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봉급생활자 가구의 소득과 금융자산간의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 월급여	1.000									
2. 부업소득	0.023	1.000								
3. 금융소득	0.126	-0.252*	1.000							
4. 부동산소득	0.084	0.531**	0.068	1.000						
5. 연금·보조금소득	0.065	0.335*	0.384*	0.163	1.000					
6. 기타소득	0.139	-0.023	0.067	0.024	0.181	1.000				
7. 총예금액	0.065	-0.096	0.024	0.015	0.081	-0.002	1.000			
8. 주식보유액	-0.079	0.006	-0.168	0.095	0.036	0.227*	-0.052	1.000		
9. 채권액	0.131	-	0.352*	0.073	-0.373*	-0.060	-0.137	-0.227*	1.000	
10. 매월보험 불입액	0.034	-0.093	-0.015	-0.081	0.065	-0.019	-0.017	0.083	-0.087	1.000

*P< .05 **P< .01 ***P< .001

〈표 5〉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과 금융자산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 월사업소득	1.000									
2. 부업소득	0.415**	1.000								
3. 금융소득	-0.016	0.040	1.000							
4. 부동산소득	0.013	-	0.404*	1.000						
5. 연금·보조금소득	0.065	-0.679**	-0.076	-0.120	1.000					
6. 기타소득	0.014	-0.023	-0.029	0.001	0.170	1.000				
7. 총예금액	0.179	0.502**	0.103	0.020	0.054	-0.047	1.000			
8. 주식보유액	0.070	-	0.650**	0.348*	0.939***	0.436**	0.388*	1.000		
9. 채권액	0.802***	-	0.455**	0.498**	0.998***	0.064	0.147	-0.514**	1.000	
10. 매월 보험 불입액	0.102	-0.092	0.077	-0.050	-0.069	0.054	0.080	-0.047	-0.255*	1.000

*P< .05 **P< .01 ***P< .001

IV. 결론 및 제언

앞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봉급생활자 가구의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과 금융자산 분석에 관해 내려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과 금융자산 구조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자영업자 가구가 봉급생활자 가구 보다 소득과 금융자산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자영업자 가구의 직업구성이 농·수·축산업을 제외한 일반상업 및 서비스업, 개업약사, 개업의사, 개업변호사, 개업공인 중계사,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져,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높은 직업으로 꼽는 직업군 중 관직에 있는 고위 관료나 대학교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업이 본 연구의 자영업자 가구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봉급생활자 가구의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과 금융자산 보유율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금융상품 소득, 부동산 소득, 예금, 주식보유율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원천별로 볼 때, 금융상품소득 보유율은 봉급생활자가 자영업자 가구보다 높고, 부동산소득 보유율은 자영업자가 봉급생활자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형태별로 볼때, 예금과 주식 보유율은 봉급생활자가 자영업자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상품소득, 예금, 주식 보유율이 자영업자보다 봉급생활자가 높은 것은 서로 일맥 상통하는 근거를 갖는다. 금융상품 소득 보유율과 예금, 주식 보유율에 관한 직업간의 일관된 결과는, 본 연구의 금융상품 소득이 이자, 매매차익, 배당금 등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봉급생활자는 자영업자에 비해 금융소득 선호형임을 짐작할 수 있다. 부동산 소득과 부채 보유율은 자영업자 가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영업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해 주는 전형적인 결과로 보인다. 자영업자 가구의 수입정도는 일정하지 않으며, 때로는 평균을 넘어 한꺼번에 많은 수입이 생기게 된다. 이때, 재정관리자는 비교적 큰 액수로 투자 가능하고 매매차익이 큰 부동산을 선호하게 되며 그 결과, 보유의 기회가 많아지고 자영업자 가구의 부의 축적은 더욱 쉬워진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봉급생활자 가구에 비해 부동산 선호형임을 짐작할 수 있다.

셋째, 직업에 따른 소득구조와 금융자산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자영업자 가구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이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변동은 심하고, 또한 봉급생활자 가구가 퇴직금 등으로 어느 정도 노후를 위한 준비가 가능한데 비해 자영업자는 노후대비를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예금과 보험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네째, 봉급생활자 가구의 소득변인과 금융자산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른 소득들은 한달 봉급, 부동산소득, 총예금액, 채권액과 유의한 상관관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봉급생활자 가구의 봉급이나 부동산소득, 총예금액, 채권액 등은 다른 소득이나 금융자산과 함께 움직이지 않는 안정된 자산으로 정착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채권액의 안정성은 <표 1>을 참고로 더욱 확실해 진다. 봉급생활자 가구의 채권액은 평균 397만원으로 자영업자 가구의 123만원에 비해 상당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여러 소득이나 금융자산액에 있어서 자영업자 보다 적은 것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금액이며 안정된 자산을 확신시켜 준다. 원래 채권은 시장의 분위기를 타는 주식과 달리 비교적 안정된 성격을 갖고 있어, 봉급생활자 가구의 자산관리는 안정지향적인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소득과 금융자산의 관계를 분석했을 때 가장 강한 상관관계($r = .531$)로 나타난 부분은 부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의 관계로써, 부업소득이 많을수록 부동산소득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과 금융자산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봉급생활자 가구는 달리 모든 소득과 금융자산이 서로 상관되어 있었고 상관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업소득은 연금보조금소득과 부적인 관계로서, 정적인 관계로 나타난 봉급생활자 가구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1999년 4월 1일자로 전국민 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그 이전에 행해진 것으로, 그 시점의 자영업자 가구의 연금은 안정된 소득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대 급부로서 부업소득이 많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연금·보조금소득은 주식과 채권액과 아주 강한 양의 상관($r = .939, r = .998$)을 보여, 연금·보조금소득이 적을수록 주식과 채권보유액 또한 적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봉급생활자 가구의 연금·보조금 소득이 채권액과 음의 상관($r = -.373$)을 보인 것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다른 직업종사자가 섞이지 않는 순수 봉급생활자 가구와 순수 자영업자 가구를 비교·분석하였다는 점과 우리나라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이 두 직업 종사자의 소득과 금융자산을 연구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원천별 소득(급여/사업, 부업, 금융, 부동산, 연금·보조금, 기타)과 금융자산(예금, 주식, 채권, 보험)을 각 가구가 고르게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비교하는데 있어서 제한점으로 작용한다. 서론에서 논한 바와 같이 소득(월평균 급여/월평균 사업소득)을 기본으로 금융자산은 생성된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회귀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주식과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의 보유빈도가 너무 낮아 올바른 회귀식을 산출할 수 없었던 점이 제한점으로 남는다. 봉급생활자 가구 중 부업소득이나 채권을 보유한 가구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자영업자 가구 중 부업소득, 주식, 채권을 보유한 가구 또한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나, 보유율의 비교는 가능하였으나 같은 보유율의 조건에서 보유액을 비교 할 수 없었다. 대우 패널 데이터에서는 또한 '잘 모르겠다'의 응답을 인정함으로써 분석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점을 보완한 후속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1. 경제학대사전(1984). 박영사: 제2개정증보판.
2. 대우경제연구소(1996). 1995년 한국가구패널조사 (KHPS).
3. 문숙재, 양정선(1996). 가계의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투자 분석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109-120.
4. 서울대학교 사회학 연구회(1997). 사회계층-이론과 실제-. 다산출판사.
5. 양세정, 이영호(1996). 가계저축규모의 결정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4(2):201-215.
6. 양정선(1991). 체계론에 기초한 도시가계의 저축 및 투자행동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7. 임정빈, 이영호, 최자영(1997). 신용카드의 사용목적 및 사용량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연구* 15:101-117.
8. 지칭, 조담(1995). 현대투자론. 박영사.
9. 통계청(1996). 도시가계연보.
10. 통계청(1998). 경제활동인구연보.
11. 한국은행(1995). 국민계정.
12. 한국은행(1996). 도시가계 저축시장조사.
13. 홍두승, 구해근(1994). 사회계층·계급론. 다산출판사.
14. 홍두승, 김병조, 조동기(1997). 한국사회 직업구조의 특성과 변화분석. 통계청.
15. Beteille, A.(1996). Stratification, Social Science, Encyclopedia, 2nd Edition. pp. 846-849,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16. Bryant, W.K.(1986). Assets and Debts in a Consumer Portfolio.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0(1):19-35.
17. Davis, E.P., Schuman, W.R.(1987). Savings Behavior and Satisfaction with Savings: A Comparison of Low-And High-Income Group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5(4): 246-258.
18. Hira, T.K.(1987). Money Management Practices Influencing Household Asset Ownership.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1:183-194.
19. Marlowe, J., Godwin, D.(1988). The Relationship of Income and Human Capital to Debt/Asset Ratio of farm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1):95-109.
20. Pearce, D.W.(1983). The Dictionary of Modern Economics, Updated and Rev. Ed.: The MIT Press.
21. Poulantzas, N.(1974). Classes in Contemporary Capitalism. Lowe and Brydone Printers Ltd.
22. Sumarwan, U., Hira, T.K.(1992). Credit, Saving, and Insurance Practices influencing Satisfaction with Preperation for Financial Emergencies among Rural Household.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 21(2):206-227.
23. Titus, P.M., Fanslow, A.M., Hira, T.K.(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4):309-318.
24. Toivonen, T.(1990). Social Class and Consumption : Employers as a special cas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4:321-340.
25. Varcoe, K.P.(1990). Financial Events and Coping Strategies of Household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4:57-69.
26. Warner, N., Cramer, S.(1995). Saving Behaviors : First wave baby boomer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9:57-67.
27. Wellen, P.D., Peck, C.J.(1990). Effect of Human Capital Factors on Income and Net Asset Amount of Older Woma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9(2):107-119.